

보도	2025.5.14.(수) 조건	배포	2025.5.13.(화)		
담당부서	국제업무국 국제기구팀	책임자	국 장	박성주	(02-3145-7890)
		담당자	팀 장	전혜영	(02-3145-7915)
	금융시장안정국 ESG시스템리스크분석팀	책임자	국 장	이 진	(02-3145-8171)
		담당자	팀 장	이상진	(02-3145-8190)
	은행감독국 은행리스크감독팀	책임자	국 장	김형원	(02-3145-8020)
		담당자	팀 장	김정일	(02-3145-8060)

금감원장, 비젤은행감독위원회(BCBS) 최고위급(GHOS) 회의 등 참석

1 BCBS GHOS 회의 참석

-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'25.5.12.(월)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「바젤 은행감독위원회(BCBS*) 최고위급 회의(GHOS**)」에 참석

* BCBS : **B**asel **C**ommittee on **B**anking **S**upervision

** GHOS: **G**overnors and **H**eads of **S**upervision,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서, 회원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가 참석

- 금번 회의에서는 바젤Ⅲ 이행현황과 기후 리스크 관련 향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주로 논의

[주요 논의사항]

① 바젤Ⅲ 이행현황

- 바젤위원회 최고위급 참석자들은 '17년 확정된 바젤Ⅲ 최종안
규제의 회원국별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 각국의 바젤Ⅲ 이행이
꾸준한 진전*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,

* 회원국의 약 70%가 바젤III 규제를 이행하고 있거나 곧 이행할 예정

- '23년 미·유럽 은행사태 등 일련의 금융시장 위기를 겪으며 글로벌 건전성 규제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인 바, 바젤Ⅲ를 충실히, 일관되게, 조속히 이행할 것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였음

② 기후 리스크 관련 향후 업무 방향

- 은행의 기후 리스크 공시에 관한 회원국들의 다양한 입장 및 견해를 반영하여, 바젤위원회는 향후 자율이행방식의 기후 리스크 공시규제체계를 발표할 예정
- 아울러, 바젤위원회는 이상기후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작업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진행할 계획

2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(OJK) 청장 면담

- 한편, 이복현 원장은 '25.5.11.(일) 마헨드라 시레가*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(OJK**) 청장을 면담하여 양국 금융감독 현안을 논의

* 바젤은행감독위원회(BCBS) 최고위급 회의(GHOS) 참석을 위해 스위스 바젤을 방문중

** Otoritas Jasa Keuangan

- 이복현 원장은 국내 금융회사의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진출 확대 의지를 전달하고 인니 금융감독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
- 아울러, 양 기관장은 그동안 직원 상호파견 및 다양한 토론회·세미나·포럼 등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한·인니 금융당국 간 굳건한 협력관계가 구축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,
 - 앞으로도 상호 긴밀한 소통을 통해 양국 금융산업 동반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우호·협력 관계 증진 의지를 재확인